



# 한국 문화와 한글 콘텐츠

Korean culture and Hangeul contents

## 6장 근대 한글 교육과 조선어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새암 강사

한국 문화와 한글 콘텐츠

6장

## 근대 한글 교육과 조선어학회

Korean culture and Hangeul contents



01

# 한글의 탄생과 근대 한글 교육

## 학습내용

#1

**하나** 근대 개화기 이후 한글이 '국문'으로 자리잡게 되는 과정

**둘** '한글'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배경

**셋** 근대 시기 있었던 한글 교육의 다양한 모습



## 학습목표

#2

'한글'이라는 명칭이 언제, 어떻게, 누가 만들어 사용하게 되었는지 알고,  
근대 시기 있었던 다양한 한글 교육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한글' 언제부터 '한글'이라고 불렸을까?

# '한글'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

# '한글날'은 왜 10월 9일일까?

## 근대 시기에 '한글'은 어떻게 교육되었을까?



한민정음



## 훈민정음, 국문이 되다

최근에 언문과 과문은 도처에서 신장하는 데 반해 고자, 고문은 도처에서 점차 위축되고 있다. 동방의 한 지역을 두고 매일 그 소장의 형세를 관찰해보건대 **오래지 않아 언문이 이 지역 내에서 공행문자가 될 것 같다.** 지금 더러 언문 소본이라는 것이 있는데 출지에 쓰기 어려운 공리문자의 경우 간간이 언문으로써 급한 형편에 대처하는 수가 없지 않다고 한다. 이것이 그 조짐이다.

– 이규상의 ,<세계설> 중에서

18세기 문인 이규상의 예측

▶ **한문에서 언문(한글)으로 문자의  
지배적인 위치가 조만간 바뀔 것**



1894년 갑오경장, 칙령 제1호 공문식 14조  
"법령, 칙령 등은 모두 국문으로 본을 삼고 한역을 붙이고 혹은 국한문을 혼용함"



## 국한문혼용이라는 과도기적 문자 생활

### ▶ 국문의 지위를 얻은 한글의 위상 변화

- 공문서에서 한문, 국한문과 함께 사용
  - 국한문으로 편찬된 교과서
- but, 이전 시대의 문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대적 한계!! → 국한문혼용

한문 중심  
문자 생활



한글 중심  
문자 생활

시대적 현실을 반영한 표기



## '한글'이라는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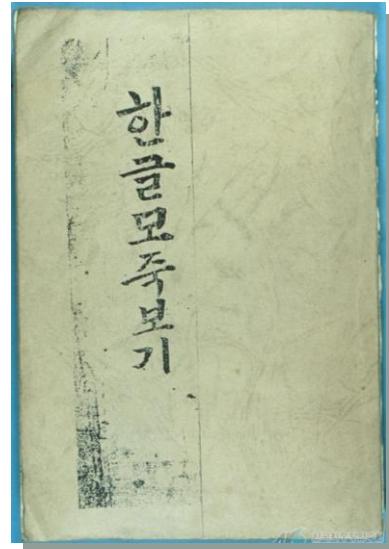




## '한글'이라는 이름

四二四六年 三月二十三日(日曜)下午一時 臨時總會를 私立普成學校內에 開하고 臨時會長 周時經先生이 昇席하다  
 … 本會의 名稱을 '한글모'라 改稱하고 ……

-1913년 3월 23일 처음 등장하는 '한글'이라는 표현, 〈한글모죽보기〉



### 한글모죽보기

일제강점기 국어학자이자 주시경의 제자인 이규영(1890–1920)이 1907년부터 1917년까지 10년간에 걸친 '하기국어강습소', '국어연구학회', '조선언문회', '조선어강습원'과 관계된 내용을 하나의 뮤음으로 기록한 잡록. 활동집.

- <한글모죽보기>의 기록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1913년에 간행된 <아이들 보이>라는 잡지의 끝에 제목으로 '한글'이라고 표기한 것이 있었다.



## '한글' 이름의 유래는

### ▶ '한'

三韓의 '한'

大韓帝國의 '한'

크다(大)의 '한'

하나(一)의 '한'

바르다(正)의 '한'

- '한'의 정확한 어원은 아직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음
- 그러나 역사적 맥락으로 보아,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은 '주시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한글'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부여는 한글이 그동안 일부 계층에서 사용된 위치에서 모든 계층에서 널리 이용되는 어엿한 문자로 인정받는 계기라 할 수 있음

\* '훈민정음'은 피지배층을 염두에 둔 명칭



## 한글날의 유래

- ▶ '가갸날'은 '조선어연구회(조선어학회 전신)'에서 훈민정음 반포 8회갑(480년)인 1926년 처음 지정, 세종실록 기록을 토대로 음력 9월 29일로 지정함
- ▶ 1928년 '한글날'로 명칭 변경, 1931년에는 양력 10월 29일로, 1934년에는 양력 9월 29일로 변경
- ▶ 1940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으로 음력 9월 10일(양력 10월 9일)로 변경
  - "11년(1446년) 9월 상한(正統十一年九月上澣)"에 책을 펴냈다는 기록에 근거, 상한(상순)의 마지막 날로 정함



## 북한에도 '한글날'이 있을까?

### ▶ 북한에는 '조선글날'이 있다

- 1월 15일을 '조선글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지만 한국과 같이 '국경일'은 아니다

### ▶ 왜 날짜가 다를까?

- 한국은 반포일 기준 VS 북한은 창제일 기준  
→ (이 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다, 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세종실록 1443년 12월 기록에 근거, 음력 12월의 중간을 택하여, **양력 1월 15일로 지정**

한글의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쉬고 있음

'한글의 탄생'은 새로운 발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

'한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계속해서 '한글의 탄생'을 만들어 가는 방법

## • 근대시기 •

한글은 **누가** 가르치고 배웠을까?

한글은 **어디**에서 교육했을까?

한글은 **어떻게** 교육했을까?

한글은 **무엇**으로 교육했을까?

흔미정음





## 한글 보급 단체의 출범과 활동 <한글모죽보기>

- ▶ 1907년, 주시경이 '하기국어강습소'를 개설하고 한글 보급을 주도, 1911년 '하기조선어강습소'로 명칭 변경, 1914년 '한글배곧'으로 명칭을 바꾸고 1917년까지 지속
- ▶ 1908년, '국어연구학회' 창립, 강습소 운영. 국어 연구와 국문 보급을 위한 연구자 및 강사진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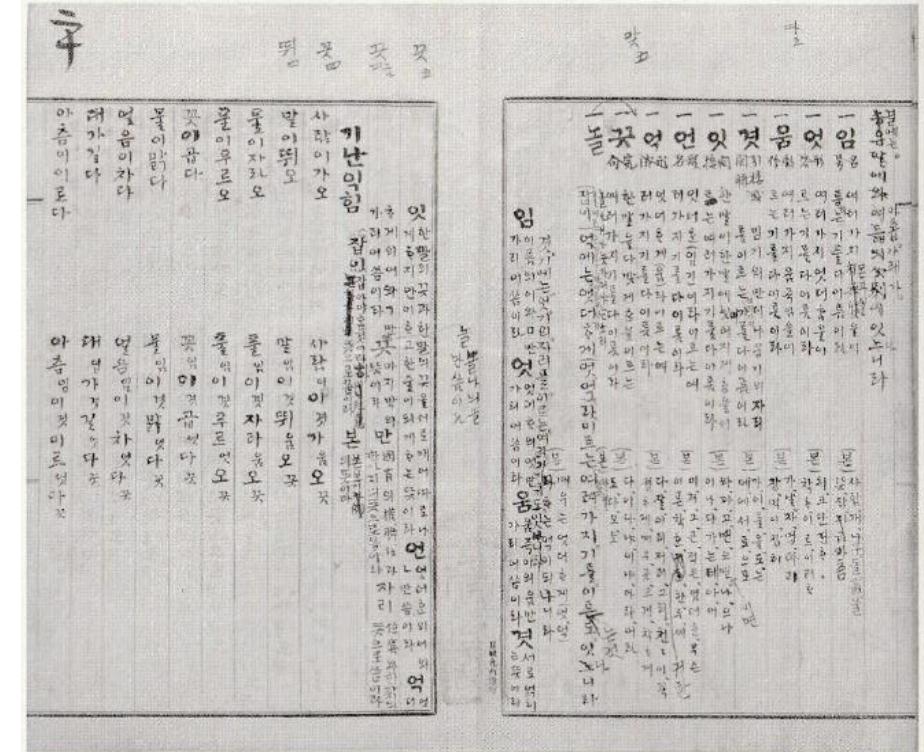


<강습원 수료증>



## 한글 기반의 국어 문법서

- ▶ 유길준의 조선문전(1906),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  
김규식의 대한문법(1908), 김희상의  
초등국어어전(1909) 등
- ▶ 근대계몽기 이러한 문법서의 간행은 국문의 지위를  
얻은 '한글'의 확산에 따른 것
- ▶ 한글로 구성된 문법서가 이 시대에 탄생한 것은 우리의  
언어, 문자 생활이 한글 중심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시사



『국어문법』



## 전통적 교육 VS 근대적 교육

### 전통적 한글 교육

- 서당이나 가정에서  
보조적 수단  
(한문/한자 학습을  
위한) 언문반절표

VS

### 근대적 한글 교육

- 근대적 교육기관(학교),  
교회에서 한글 및  
국어(독본) 교육 교과서



## '언문' 반절표의 인기

- ▶ 한글 자모의 습득이 중심인 전통적인 한글 교육에서 다양한 '언문 반절표'가 간행되어 사용되었음
- ▶ 근대에도 '언문 반절표'는 한글 교육 및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꾸준하게 사용됨
- ▶ 국어 교과서, 조선어 독본에도 첫머리에 '반절표'를 제시
- ▶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서에도 사용
- ▶ 해방 후 문맹 퇴치를 위한 '국문초보'와 같은 전단지에서도 활용
- ▶ '반절표'를 활용한 전통적인 한글 교육은 오랜 시간 그 효과가 입증된 유용한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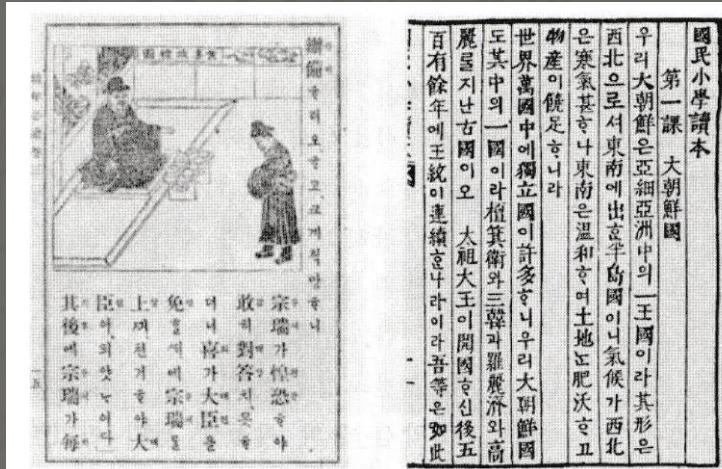


<반절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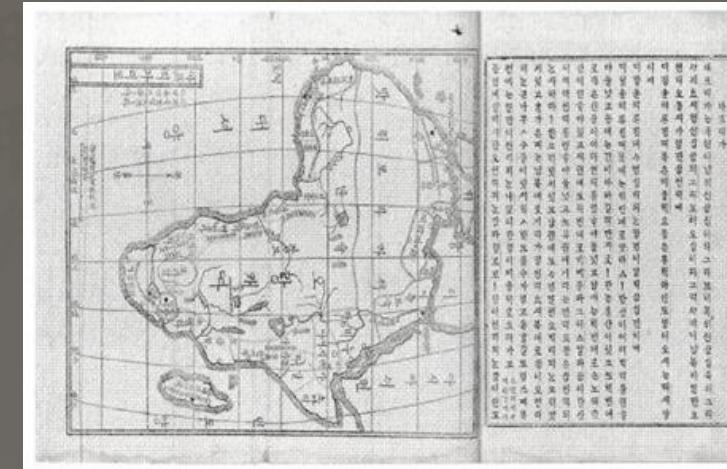


## 국어 교과서의 등장과 근대적 한글 교육

- ▶ 국어교육의 핵심은 한글 교육에서 출발하는 것
- ▶ 근대 국어 교과서들의 지향은 근대 문명 지식의 학습과 한글 문해력 향상
- ▶ 근대 출판 및 활자 문화의 발달과 1895년 <교육입국조서>는 국어 교과 독본류의 간행을 자극
- ▶ 독본류 교과서들은 대부분 국한문혼용체로 출간되었으며, 해방이 되기 전까지 한글 전용의 근대 교과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 ▶ 학부가 간행한 국어 교과 독본류(을사늑약 이전) : 국민소학독본(1895), 소학독본(1895), 신정심상소학(1896)
- ▶ 학부가 간행한 국어 교과 독본류(을사늑약 이후) : 보통학교 학도용 국어독본(1907)



『국민소학독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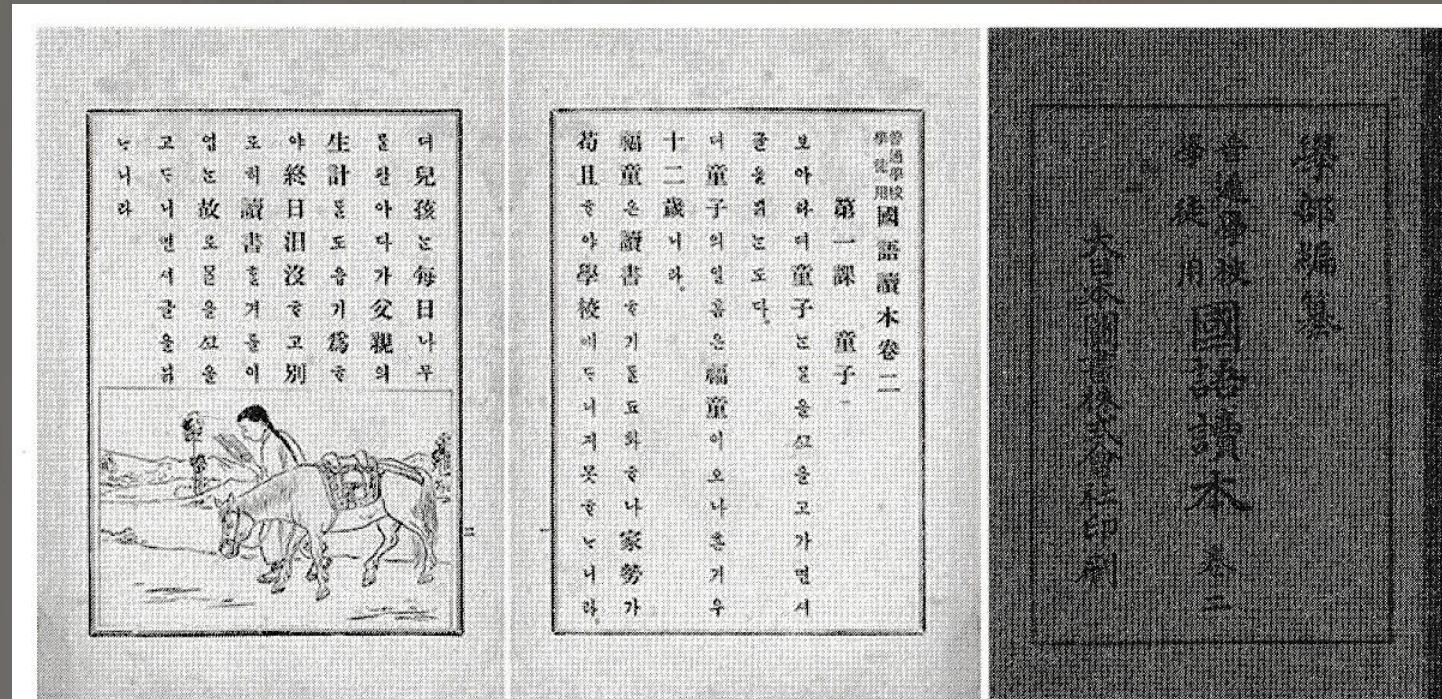
# 『사민필지』



## 『소학독본』



『신정심상소학』



『보통학교학도용 국어독본』

권1에서 한글 자모와 반절표가  
체계적으로 등장  
보통학교 저학년 학도를 위해  
한글이 교육의 중심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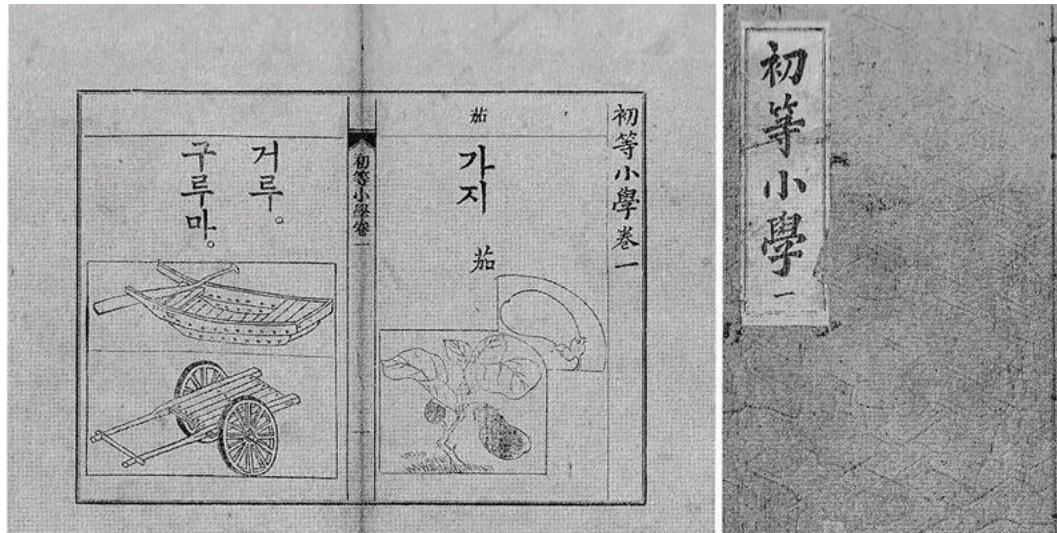
## 사립 기관 국어 교과서의 등장

- ▶ 1896년 이후 10년간은 국어 교과 독본류가 출간되지 못한 암흑기
  - 초등소학(1906), 대한국민교육회에서 편찬하고 간행
  - 고등소학독본(1906), 휘문의숙에서 간행하여 보급
- ▶ 을사늑약 직후 학부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그에 대한 자극으로 사립기관을 중심으로 근대 국어 교육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 것



## 초등소학(1906), 대한국민교육회 편

▶ 극히 제한적으로 한자를 노출, 한글전용체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최초의 한글 전용 국어 교과서(현재까지는) 대부분의 교과서가  
국한문혼용체를 채택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혁신적인 문체 구성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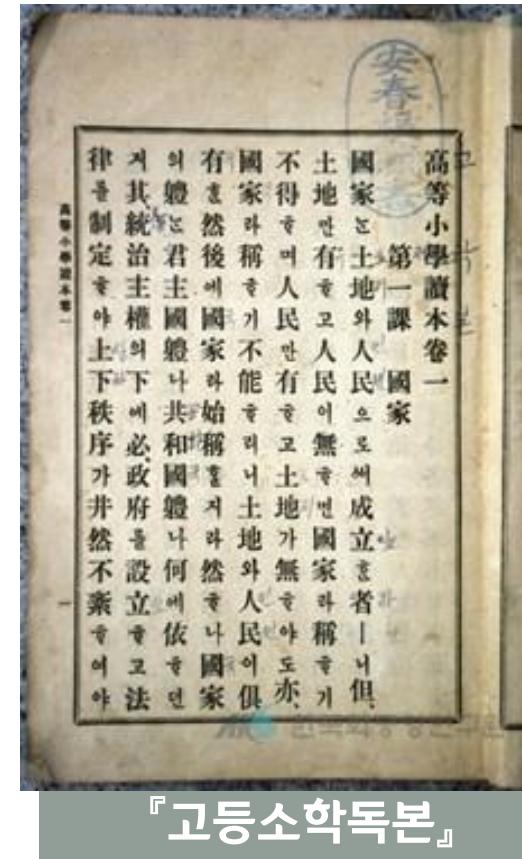


『초등소학』



## 고등소학독본(1906), 휘문의숙 편

▶ 학습자가 한문에 깊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문 문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이며, 국한문혼용체이나 다소 한문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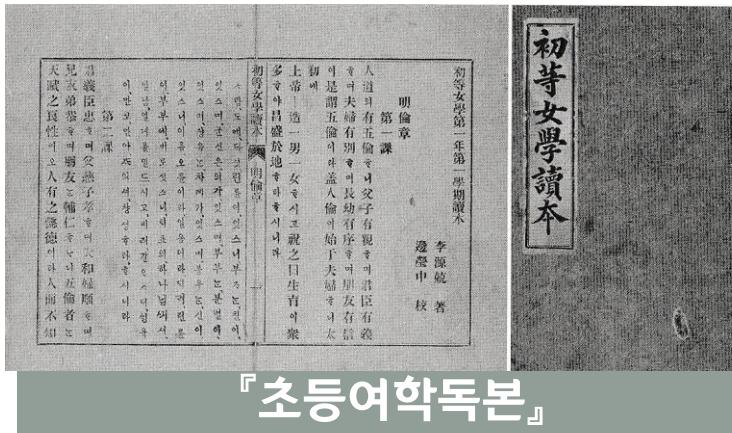


『고등소학독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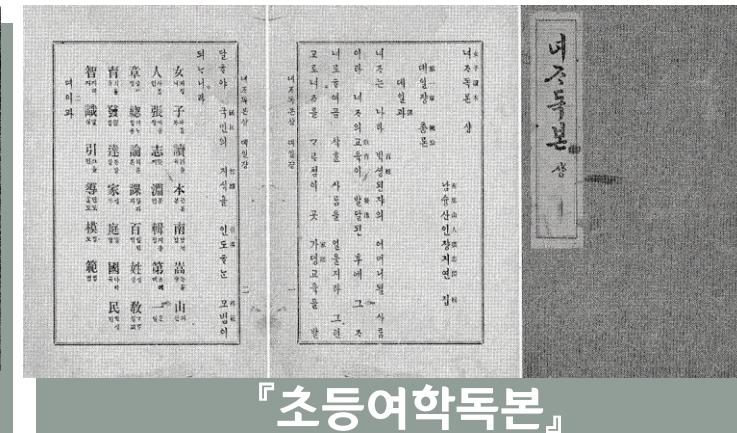


## 여성 대상 국어 교과서의 등장

- ▶ 여성 대상 국어 교과서의 등장은 교육에서 소외되어 차별을 받던 전근대 시대의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 ▶ 1908년 여자독복, 초등여학독본, 부유독습 3종의 국어 교과 독본류가 간행됨



# 『초등여학독본』



『초등여학독본



## 일반인을 위한 국어 독본류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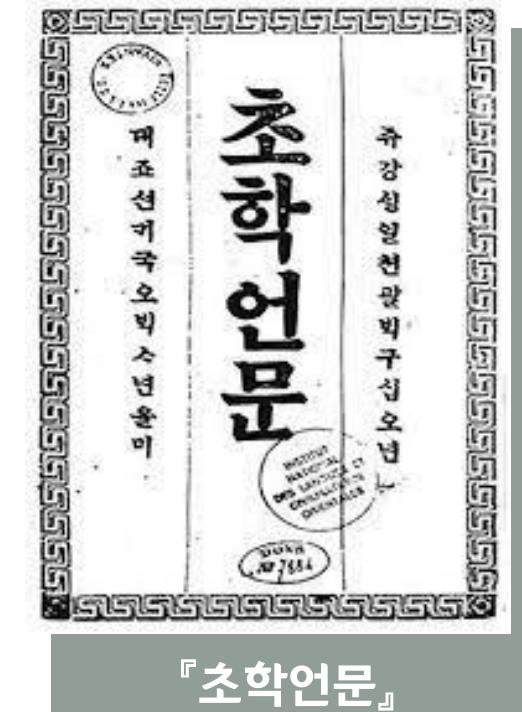
- ▶ 유길준의 노동야학독본(1908), 노동자뿐 아니라 남녀노소 보통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교과서





## 개신교 선교사들의 한글 교육

- ▶ '전도'라는 선교 목적의 달성을 위해 한글 보급 및 교육에 노력
- ▶ 근로층과 부녀자를 주된 전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기독교 서적이나 출판물은 한문을 쓰지 않고 조선글로만 쓰게 한다'라는 방침
- ▶ 성경이나 전도문서를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한글 교육이 선행이자 필수
- ▶ 선교사들이 직접 가르치거나 조선인 교사를 채용하기도 하였으며, 전통적인 반절 중심의 교육과 더불어 단어 중심 접근도 이루어짐
- ▶ 존스가 쓴 초학언문(1895)이 대표적인 한글 교재로, 배재학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션 스쿨에서 한글 교재로 사용
- ▶ 초학언문(1895)은 '자모–음절–단어–문장–문단 또는 글'의 체계적인 교육적 접근을 제시



## 학습정리

### #1 한글의 탄생과 근대 한글 교육

- #2 • 훈민정음은 정음, 반절, 언문, 암률, 가갸글, 아햇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다

1894년 '국문'의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후 주시경 선생이 처음 '한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자리잡게 되었다.

- #3 • '한글'이라는 이름은 <한글모죽보기> 1913년 3월 23일에 처음 등장한다.

- #4 • '한글'의 '한'의 의미는 '삼한, 대한제국'의 '한(韓)'을, 또 '大, 一, 正'의 '한'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의 어원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아직 찾을 수 없다.



## 학습정리

### ▣ 한글의 탄생과 근대 한글 교육

- #5 • '한글날'은 몇 차례 변경을 거쳐 훈민정음 해례를 근거로 하여 현재 **날짜인 10월 9일**로 정해졌다.
- #6 • 근대 시기 한글 교육은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졌다.
  - '한글 연구와 보급, 교육을 위한 단체가 출범하였고, 한글 기반의 문법서가 출간되기도 하며 한글 교육을 위한 기반이 다져졌고, '언문반절표'를 활용한 전통적인 한글 교육과 더불어 학부와 사립 기관에서 간행한 국어 교과용 독본류를 통해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다. 또한 개신교 선교사들도 전도를 위한 한글 교육과 교재를 출판하기도 하였다.



02

## 한글의 시련과 조선어학회

## 학습내용

#1

하나 일제강점기 한글의 시련

둘 조선어학회의 활동과 <조선어학회 사건>



## 학습목표

#2

일제강점기 **조선어학회의 활동과 <조선어학회 사건>**을 통해 한글을  
지키고자 했던 선조들의 노력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일제는 어떻게 우리말글을 탄압했을까?

'조선어학회'는 왜 사전을 만들었을까?

'조선어학회 사건'은 왜 일어났을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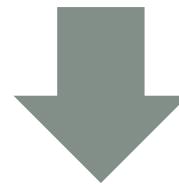


## 식민지 조선, 말과 글을 잃다

- ▶ 1910년 일제에 나라와 국권을 빼앗기면서 우리말과 글은 더 이상  
'국어'가 아닌 식민지 지역 방언 '조선어'로 격하되고,  
'국문'으로서의 지위를 갖 얻은 '한글' 역시 그 지위를 상실하게 됨



일본어(국어)



조선어(식민지 지역 방언)

'한글'이라는 명칭은 '조선인'에게만  
유효하고 의미가 있음



## 일제의 일본어 상용화 정책: 교육을 장악하라!

### • 1906년 <대한매일신보> 기사 中 •

교과서라 하는 것은 자기 나라의 사상과 자기 나라의 물정에 맞게 한 후에야  
이것으로 아동을 교육하는 것을 계발할 수 있거늘, 지금 폐원단 씨는 그리하지 않고  
일문으로 한국 초년의 교과서를 편집하니, 학부 대소 관인이 동의한 자가 한 사람도  
없거늘, 그 사람이 고집을 부려 뒤집고 자기 마음대로 하여, 변함없이 일문  
교과서를 편집하기 위하여 일본 사람을 다수 모집하여 편집에 종사한다고 하니,  
**한국 유년에게 일문 교과서를 읽히게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뇌수를 뚫고 저 소위  
일본 혼이라는 것을 주사하고자 함**이라.

– <대한매일신보>, 1906년 6월 6일 사설의 현대역



## 일제의 식민지 언어 정책

조선인

일본어 교육 강화



폭력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권력의 언어에서  
밀려난 언어는 도태될 것



일본 관료

조선어 장려 정책

"언어가 통하지 않아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조선어를 습득하라"  
일본인 교사에 대한 총독부 방침



## 일제의 식민지 언어 정책

### • 이병기, <가람일기> 中 •

1926년 7월 7일(수) 맑다, 무덥다. 4학년 조선어 시험 답안을 보다가 화가 난다. 이 과정에 대하여는 너무들 성의가 없다. 온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추세로 사니 학생들만 나무랄 것 없지마는, 화는 아니 날 수 없다. 어제도 조선어 시간에 2학년 누구가 조선어 시험 보나요 하기에 한바탕 야단을 쳤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우스운 일이지마는 그런 말을 듣는 때에는 과연 그저 있을 수 없다. 진실로 무엇을 배우는 셈인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 모르겠다.

– 이병기, <가람일기> 1, 1974



## 일제의 일본어 상용화 정책

- ▶ 한일병합 전 통감부,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편찬 방침  
 (반대 여론으로 일어 독본과 이과理科 교과서만  
 일본어로, 나머지 교과서는 국한문 혼용으로)
- ▶ 1910년 이후, 조선어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발행, 행정과 법률 관련 문서는 일본어를 표준  
 (조선어는 일상 언어로는 활발하게 사용되었지만 교육,  
 행정, 법률, 학술 등 영역에서 밀려남)



<일제 강점기 국어 독본>



## 일본어 상용화 정책의 전개

▶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주고, 특히 **국민 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1911년 <1차 조선교육령. 제1장

강령 제5조>

- 일본어 상용화가 식민지 교육의 중요한 목표였음
- 1922년 2차, 1938년 3차, 1943년 4차 개정교육령 모두 일관되게 일본어 상용화를 지향

▶ 1차, 2차 교육령은 표면적으로 '일본어 필수, 조선어 필수' 체계

- 조선어 외 모든 교육이 일본어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조선어 교육은 무시 (가람 이병기의 일기)



## 일본어 상용화 정책의 전개

### ▶ 3차 교육령은 '일본어 필수, 조선어 선택' 체계

- 일본이 실력 향상이라는 총독부 지침으로 일본어 상용 정책이 폭력적 양상으로 나타남
- 수업 중 조선어 사용 학생 체벌이나 정학 등의 사건이 신문 기사에 종종 등장





## 일본어 상용화 정책의 전개

### ▶ 중일 전쟁(1937년)과 태평양 전쟁(1940년) 이후의 '조선어 말살 정책'

- 식민 통치가 강압성을 떠면서 조선어에 대한 탄압도 더욱 폭력적 전개
- 1942년 시작된 '국어전해운동(國語全解運動)'으로 일본어가 전 사회적으로 강제
- 조선어 신문의 폐간
- 조선어학회 사건
- 창씨개명 강제

일제의 일본어 상용 정책은 단계적으로 치밀하게 진행  
'일본어 필수, 조선어 필수' 체제에서 '일본어 필수, 조선어 선택' 체제로  
전환하며 조선인이 스스로 조선어를 포기하고 일본어를 선택하도록 유도  
강점기 말에는 강제적이고 폭력적으로 조선어 말살 정책 추진



## '조선어 장려 정책'의 진짜 의미

### ▶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관리, 교사, 경찰에게 조선어를 배우라고 장려했는데?

- 총독부는 1918년 피지배자인 조선인과 의사소통을 위해 '조선어 시험 규칙'에 대한 훈령을 공표했고, 1920년대엔 조선어 학습능력에 따라 관리의 승진, 수당에 차이를 두는 제도로 확대
- 관리들은 시험 성적에 따라 5~50엔의 수당, 시험 불합격자는 상여금이 최대 4분의 1수준으로 경감
- 일본인 대상 조선어 교육은 '민족말살' 통치기였던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 쇠퇴했고, 수당 지급의 범위도 대폭 축소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어 '장려정책'이지만,  
식민 통치의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말살정책'

## 저항적 민족어 운동: 조선어학회

만약 해방이 늦어지거나, 되지 않았다면 우리말과 글은 사라졌을까?

'우리말과 글을 유지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조선어학회는 왜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했을까?



## 조선어학회는?





## 조선어학회의 활동: 한글날 지정



▲가갸날 기념식 기사

(출처: 조선일보 아카이브)



▲가갸날 기념식 기사

(출처: 동아일보 아카이브)

-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을 한글 반포일로 삼아 '가갸날' 제정, 2년 뒤인 1928년 '한글날'로 명칭 변경
- 이후 몇 차례 날짜 변경이 있었으나 1940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발견 이후 지금의 10월 9일로 정해짐



## 조선어학회의 활동: 우리말 연구와 어문규범의 정리

- ▶ 1927년 2월 10일, 기관지 <한글> 창간
- ▶ 한글 문자 및 철자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한글>을 통해 전개됨
- ▶ 1929년 10월, 사전편찬회를 조직하고 철자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제정의 어문규범 제정 사업을 단계적으로 진행
- ▶ 1933년 10월, <한글마춤법통일안> 제정
- ▶ 1936년 10월,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제정
- ▶ 1941년 1월, <외래어표기법통일안> 제정
- ▶ **한글마춤법통일안**은 1937년, 1940년에 수정안을 발표하고, 이후에 도 몇 차례 수정을 거쳐 오늘날 <한글맞춤법>(1988)으로 발전한 우리 어문규범의 모태이자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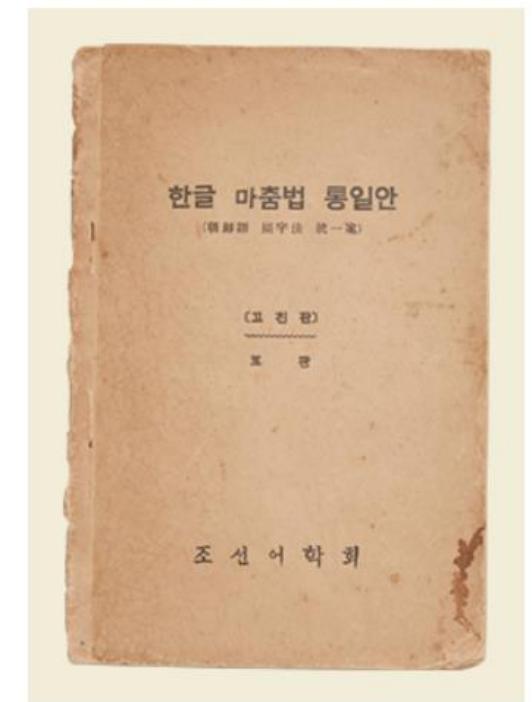
## 조선어학회의 활동: 우리말 연구와 어문규범의 정리



▲한글 창간호  
(한글사, 1927)



▲한글 마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1933)



▲한글 마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1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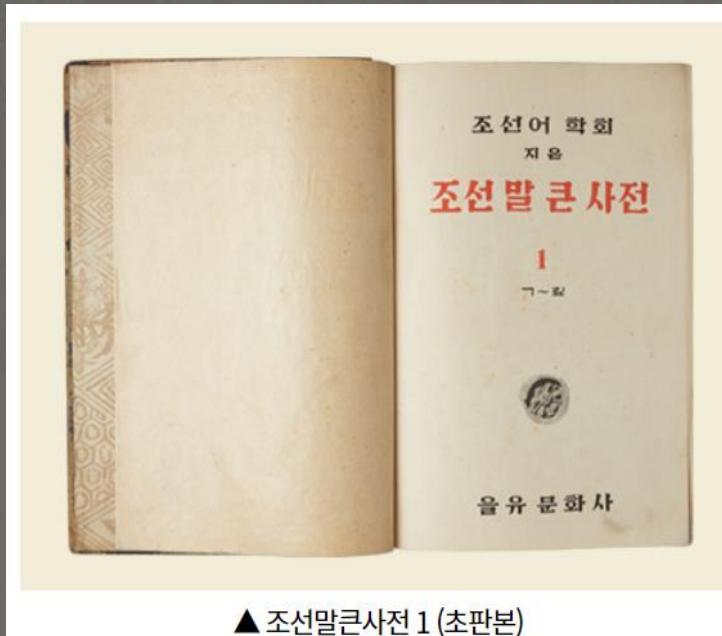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e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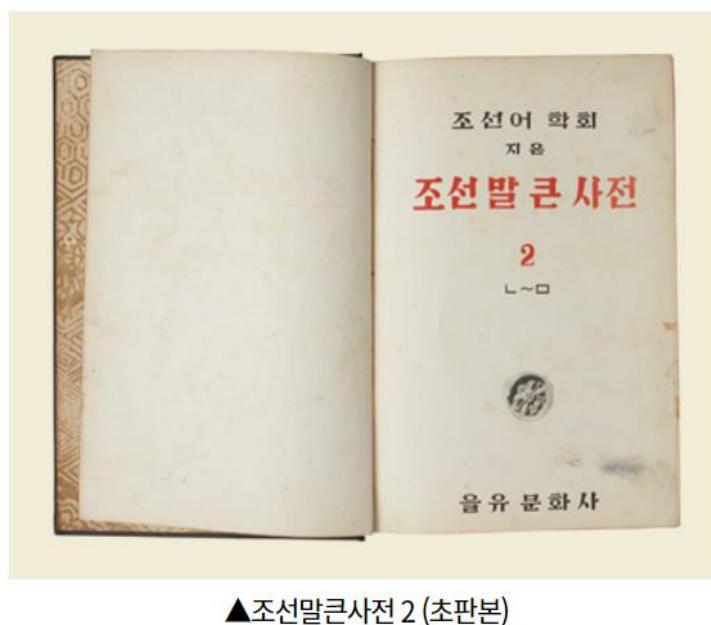
## 조선어학회의 활동: 우리말 사전의 편찬

- ▶ 조선어학회의 어문규범 제정은 본질적으로 우리말 사전 편찬을 위한 준비 과정
- ▶ 1933년 <한글마춤법통일안>을 시작으로 1941년 <외래어표기법통일안>으로 어문규범의 정리가 마무리된 후, 1942년 봄에는 <조선어대사전> 출간을 위한 원고가 탈고
- ▶ 1942년 10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행방 이전 사전의 출간은 이루어지지 못함
- ▶ 해방 이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 당시 압수되어 행방불명 되었던 <조선어대사전>의 원고의 초고(원고지 2만 6천5백여 장 분량)를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찾아(1945년 9월 8일) 1947년 한글날에 맞추어 <조선말 큰 사전> 1권을 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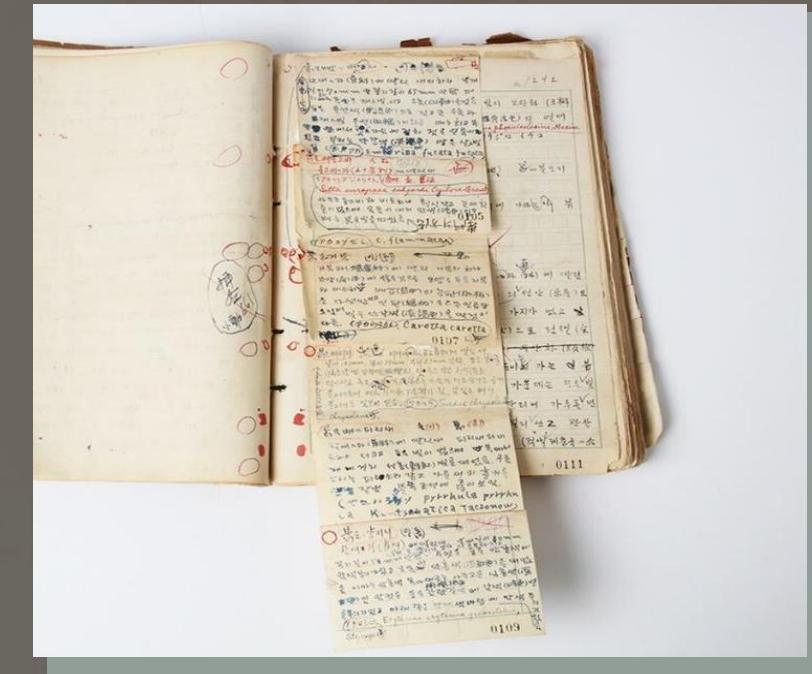
## 조선어학회의 활동: 우리말 사전의 편찬



▲ 조선말큰사전 1 (초판본)



▲ 조선말큰사전 2 (초판본)



출처 국립한글박물관 e뮤지엄



## 사전 편찬이 왜 중요한가?

### ▶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10년의 작업을 거쳐 조선어 사전 발간

- 조선총독부를 통해 조선어의 위상 결정
- 조선어가 아닌 일본어 상용을 위한 사전
- 일본인을 위한 조선어 학습 사전이 아님
- '조선어 올림말 – 일본어 뜻풀이' 구조
- 조선어와 일본어의 위계가 설정



1920년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어사전> 표지와 첫 쪽(박용규 제공)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 편찬회의 결성은 조선총독부의 사전이 표준이 될 수 없으며,  
조선어로 조선어를 설명하는 조선어사전을 만들겠다는 의지



## 조선어학회 사건

### • <조선어학회 사건> •

1942년 8월, 조선어학회 회원 정태진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불거져 그해 10월 조선어학회를 학술단체를 가장한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하며,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검거한 사건으로, 1943년 4월까지 7개월에 거쳐 33인의 학자가 내란죄로 기소되었다. 이중 대다수는 징역 판결을 마치고, 또는 징역형 중 해방으로 풀려났으나 일부는 심한 고문, 굶주림, 추위로 옥사하였다.

또한 편찬 중이던 사전의 원고(400자, 3만 2천여 장과 어휘카드 20만 매) 역시 압수당하였다.



## 조선어학회 사건

- ▶ 언어의 규범(철자법)을 마련하고, 표준어를 지정하고, 사전을 편찬하는 것은 민족어가 근대 국가의 '국어'를 만들어가는 과정
- ▶ 식민지 조선어의 '국어' 만들기는 당연히 일제의 '국어(일본어)' 상용 정책과 대립할 수밖에 없음



## 조선어학회 사건의 의미

- ▶ 조선어학회는 일제강점기 활동한 저항적 문화운동 단체의 상징
- ▶ 조선어학회의 어문 정리 사업은 갑오개혁 이후부터 계속 이어져온 것으로 일제강점기 어문 정리 사업의 협조자가 아닌 엄연한 주체였음
- ▶ 당시 이들은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는 것이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한 운동이라는 믿음
- ▶ 이들이 있었기에 한글은 일제강점기에도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음



<조선어학회 사건 수난 동지회 사진>

## 학습정리

#1

### ▣ 한글의 시련과 조선어학회

#2

- 일제는 모든 교과서를 일본어로 발행하며, 교육에서부터 일본어 상용화 정책을 통해 식민지 조선어 언어와 문자를 통제하였으며, 1930년대 이후부터는 더욱 폭력적으로 우리말과 글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창씨개명, 조선어 신문 폐간, 국어전해운동 등이 대표적이다.

#3

- 이러한 우리말글 탄압에 맞서 조선어학회는 어문규범의 정리, 표준어 지정, 사전 편찬 등 민족어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펼쳤고,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많은 학자들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4

- 조선어학회의 활동은 일제강점기 상징적인 저항적 문화운동으로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일제강점기 한글이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 정체성을 현재까지 지킬 수 있었다.



03

## 한글의 부흥과 실천적 활동

## 학습내용

#1

**하나** <조선말 큰 사전>의 탄생

**둘** 해방 이후 우리말글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



## 학습목표

#2

**해방 이후 한글이 우리말글로 다시 부활하는 과정의  
다양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 영화 <말모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장면 1] 표준어 사정 장면/방언 수집 장면



영화 <말모이>에서 사투리를 수집하는 장면

# 영화 <말모이> 어디까지가 사실일까?

[장면 2] 경성역에 사전 원고를 숨기는 장면



영화 <말모이>에서 서울역 창고에서 잃어버린 원고를 되찾는 장면



## <조선말 큰 사전>의 탄생

- ▶ 1929년 시작된 <조선어 큰 사전> 편찬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원고를 압수당하며 중단
- ▶ 해방 이후 1945년 9월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발견된 원고를 바탕으로 1947년 한글날에 맞춰 <조선어 큰 사전> 1권이 간행
- ▶ 이후 '한글학회'로 명칭을 바뀌면서 3권부터는 <큰 사전>이라는 책명으로 1957년까지 총 6권이 완간
- ▶ 1929년부터 약 30년에 걸친 사전 편찬을 위한 대장정





## 해방 후 '조선말 큰 사전' 발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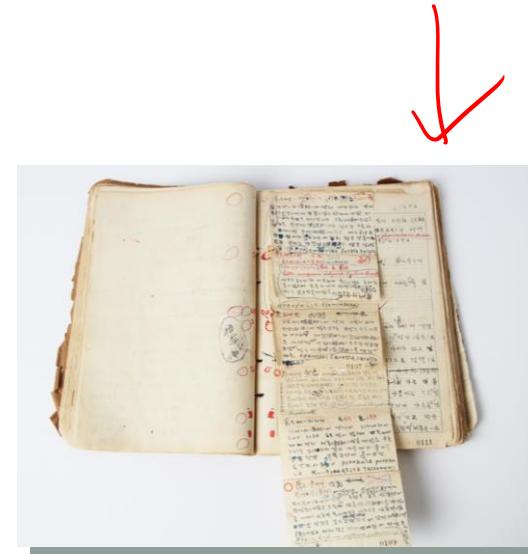
- ① 조선어 사전 원고 찾음 (1945년 9월)
- ② 원고의 전면 재검토
- ③ [조선말 큰 사전] 1권 간행 (1947년),  
[조선말 큰 사전] 2권 간행(1949년)
- ④ [큰 사전] 3권 간행(1950년)
- ⑤ 한국전쟁(625)과 '한글간소화파동'
- ⑥ [큰 사전] 4권, 5권, 6권 간행(1957년)





## 잃어버린 조선어 사전 원고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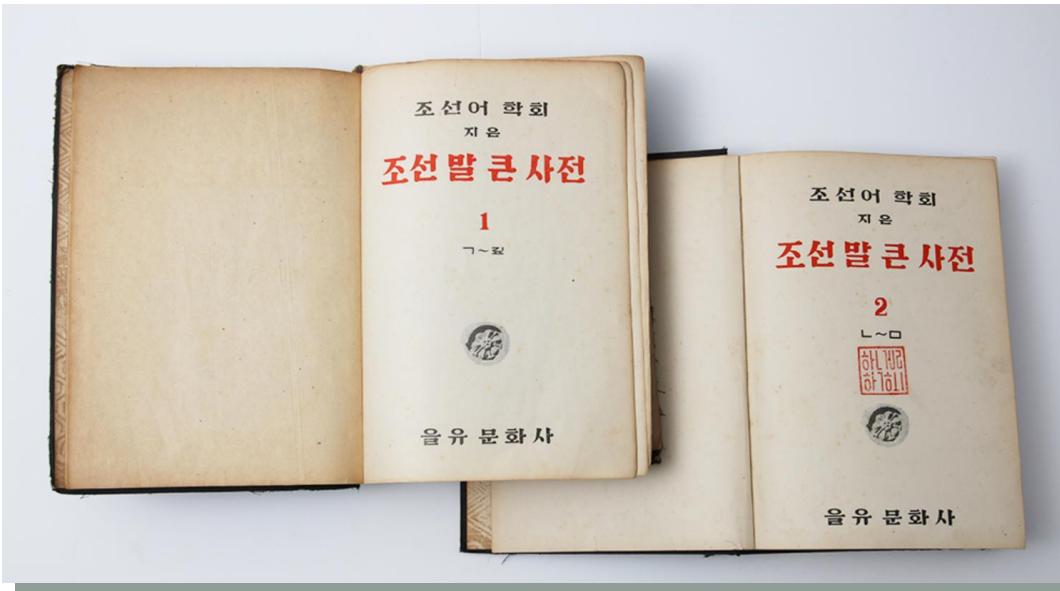
- ▶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치안유지법' 위반의 증거물로 압수,  
함경남도 홍원경찰서 → 함흥지방법원 제출까지는 확인
- ▶ 해방 후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1945년 9월 8일, 경성역 화물 창고에서 발견
- ▶ 재판 증빙 자료로 경성고등법원에 보내진  
것이 경성역 화물 창고에 버려져 있던 것
- ▶ 일제의 감시와 검열 등 제한된 환경에서  
작성된 원고였기에 수정 및 보완 등 검토  
과정이 필요





## [조선말 큰 사전] 1권을 간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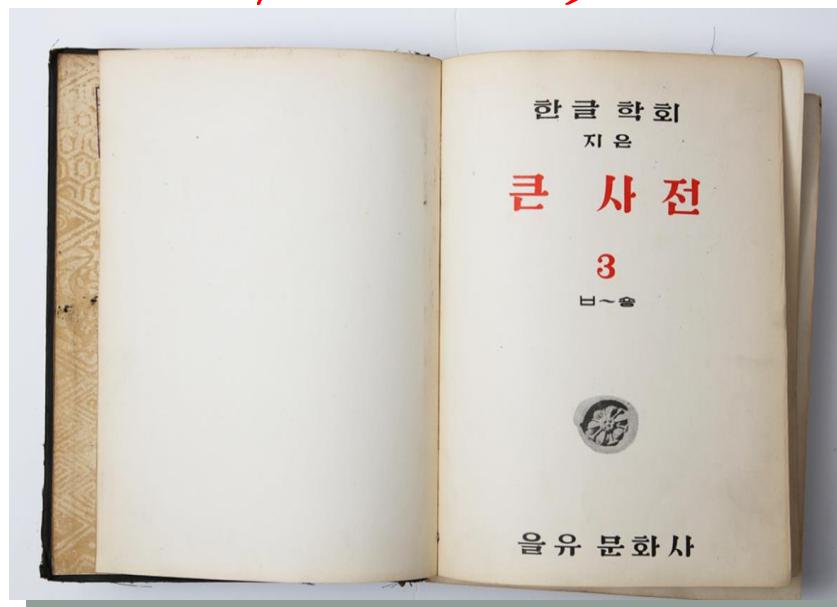
- ▶ 수정된 원고로 1947년 한글날 1권 간행
- ▶ 이후 비용 부족으로 중단되었다가  
미국 록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같은 해 2권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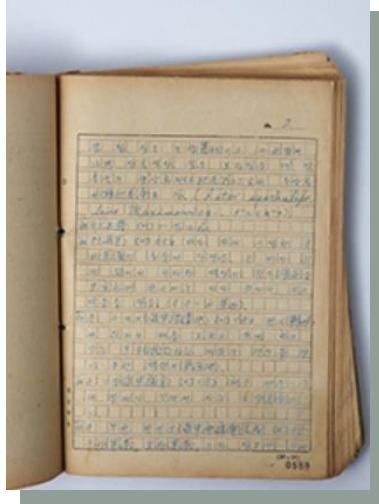
## [큰 사전]으로 이름을 바꾸다!

- ▶ 록펠러 재단의 지원으로 1950년 3권 발행
- ▶ [조선말 큰 사전]에서 [큰 사전]으로 이름 변경
  - \*북한 정권의 수립으로 '조선어' 사용 기피
- ▶ [조선어학회] → [한글학회]로 학회 명칭도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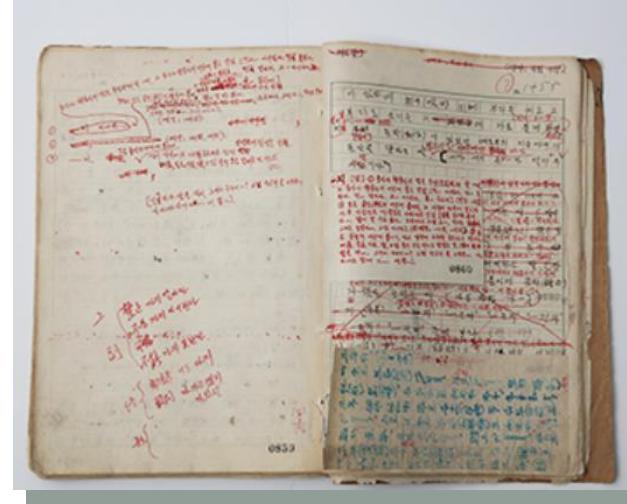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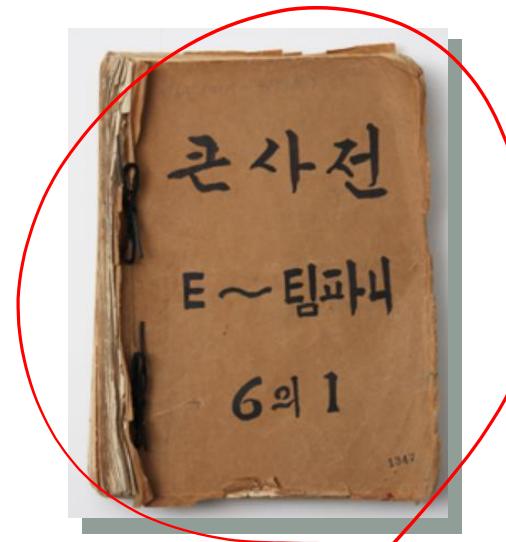
## 전쟁 중에도 계속된 사전 편찬 작업!



1950년 11~12월에 베껴 쓴  
원고 (제6권의 일부)



6.25전쟁 중에 전주에서 수정한  
제 5권 (1953년)



6.25전쟁 중에 전주에서 수정한  
제 6권 표지 (1953년)



## 한글간소화 파동을 이겨내다!

### • 한글맞춤법 간소화안 •

- 1953년 4월 27일 '정부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구 철자법을 사용하라',  
국무총리 훈령 제8호
- 1954년 대통령 이승만이 종래의 정서법을 사용한다는 담화문 발표
- 이 안의 핵심은 '쉬운 철자법', 형태주의에서 표음주의로의 전환
- 조선어학회(한글학회) 등 전문가 집단의 반발로 2년의 거친 한글 파동은 일단락



이 [한글맞춤법 간소화안]으로 인해  
<한글맞춤법통일안>에 기반한 '큰 사전' 발간



## [큰 사전] 드디어 완간!

- ▶ 휴전 이후, 한글 파동을 거쳐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다시 받아 1957년 6월에 5권, 8월에 4권 발행
- ▶ 1957년 한글날 드디어 마지막 6권을 발행하여 [큰 사전] 완간





## <조선말 큰 사전> 발간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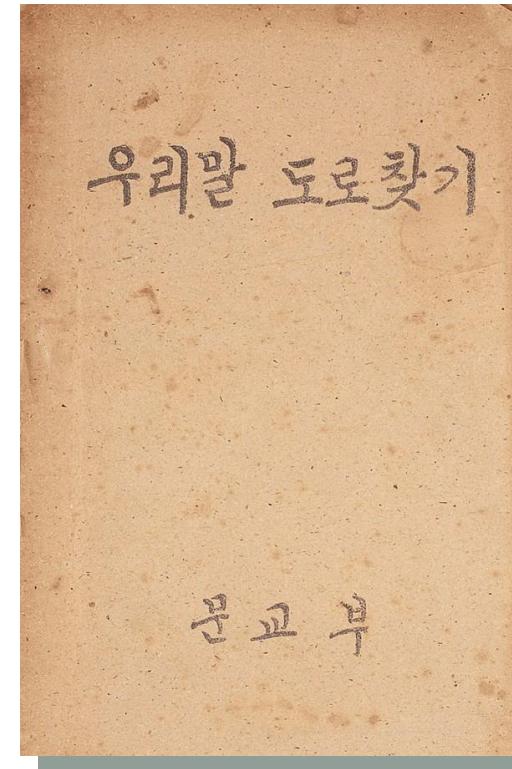
"오늘날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경생할 청경(지름길)은 문화의 형상과 보통을 금속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촉진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금속이 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를 실천할 최선의 방책은 사전을 편성함에 있는 것이다."

- 조선여학회, 「조선여학회사전편찬회 취지서」, 『한글』 31(19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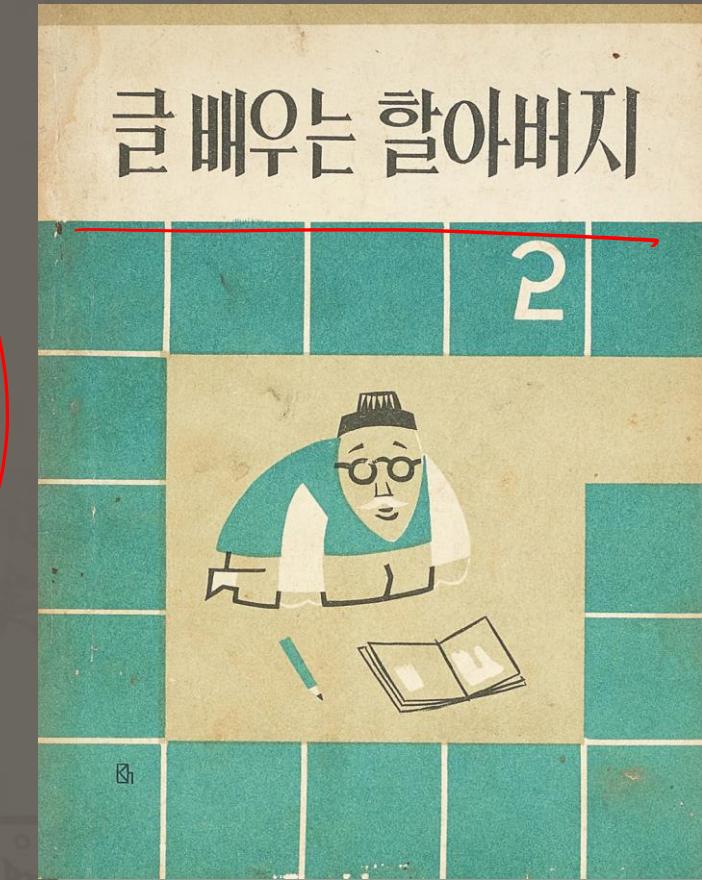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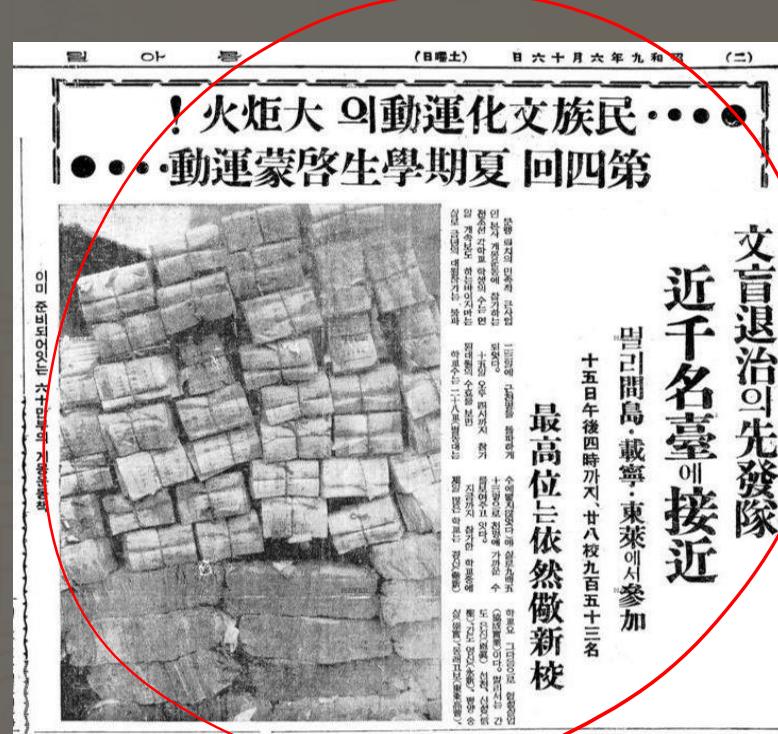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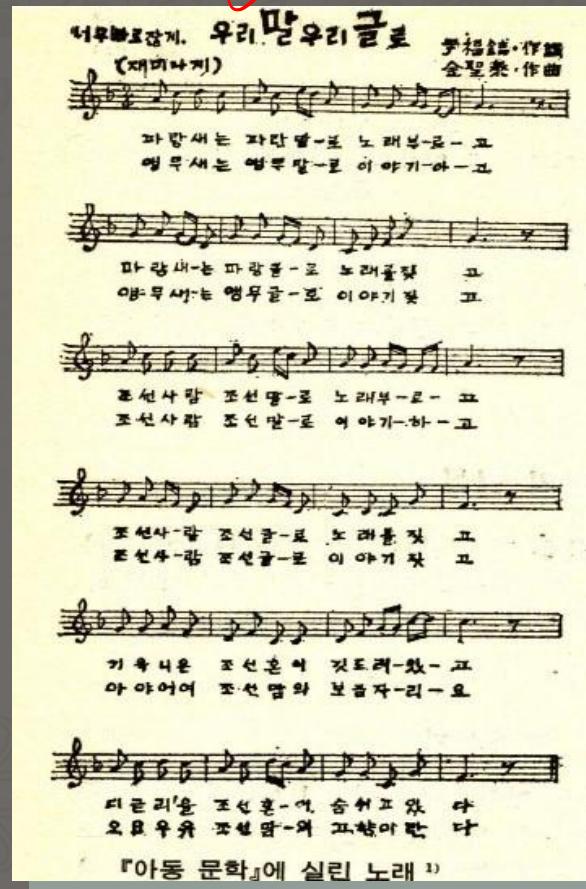


## <우리말글 살리기의 노력: 국어 순화 운동

- ▶ 우리말에서 일제의 잔재를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전개
- ▶ 새로 만드는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하여 문교부에서 관여
- ▶ 1948년 문교부 편수국에서 <우리말  
도로찾기> 책자 제작
- ▶ 1948년 제헌국회에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한글 전용'의 법적 효력  
공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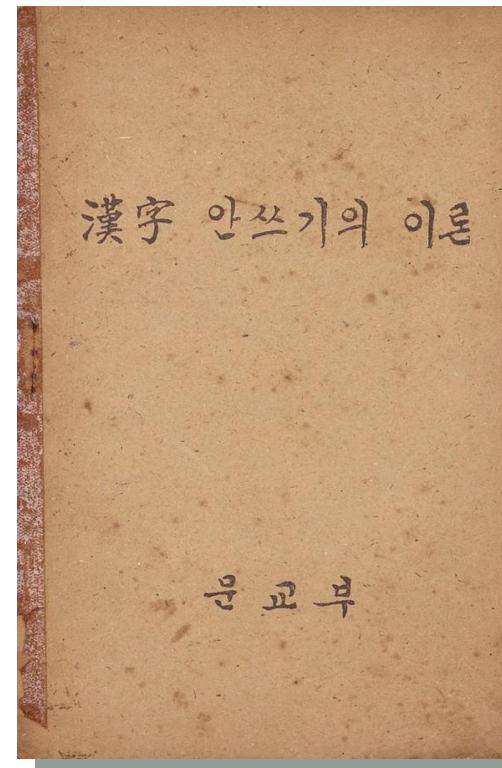
## 우리말글 살리기의 노력: 문맹 타파 운동





## 우리말글 살리기의 노력: 한글 전용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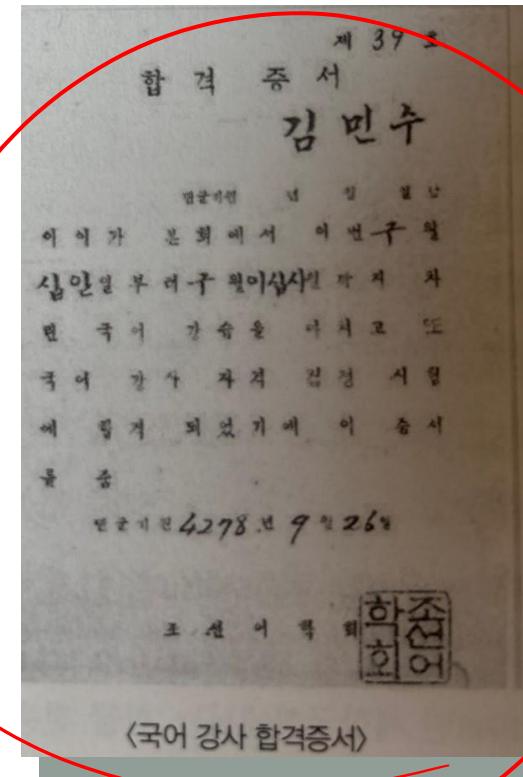
- ▶ 1945년 조선교육심의회 교과서 분과위원회에서 '한자 폐지' 결의
- ▶ 당시 문교부 편수국장 최현배의 <글자의 혁명>(1947)에서  
'한자 안 쓰기' 주장





## 우리말글 살리기의 노력: 한글 교육(조선어학회 국어강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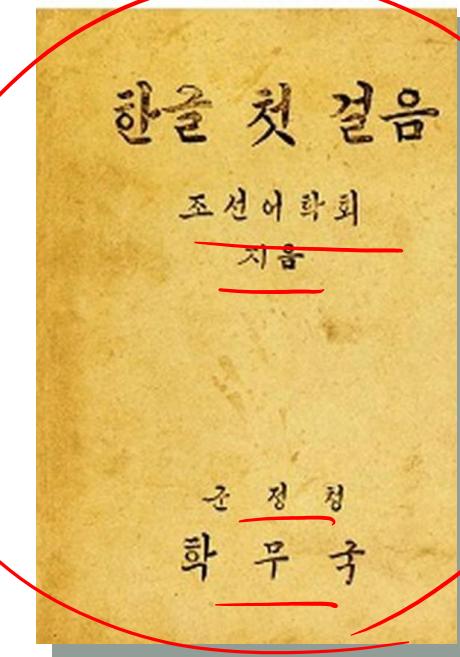
- ▶ 민간 학술 단체 중심의 철자법 교육
- ▶ <한글맞춤법통일안>(1940)을 교재로 삼아 진행
- ▶ 학생, 교원, 일반 지식층에게 한글 규범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선어학회의 주요한 과제이자 실천 활동이며, 이를 위한 강사 배출이 시급한 과제
- ▶ 1945년 9월 강습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사 자격 검정 시험(300여 명 중 39명 선발)을 거쳐 전국 각지에 파견되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한글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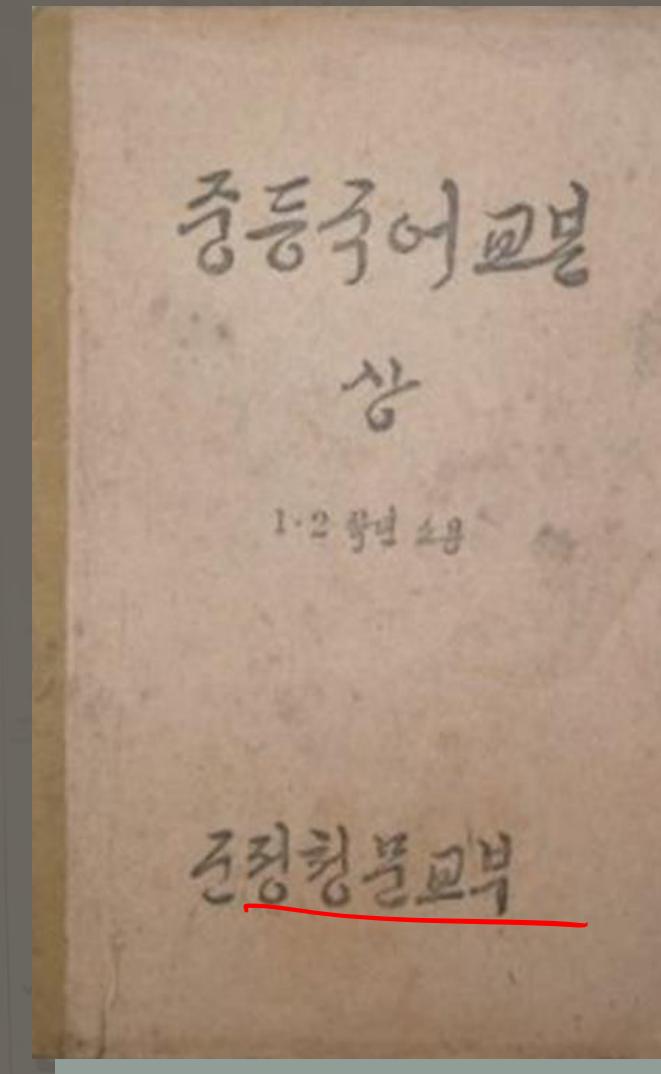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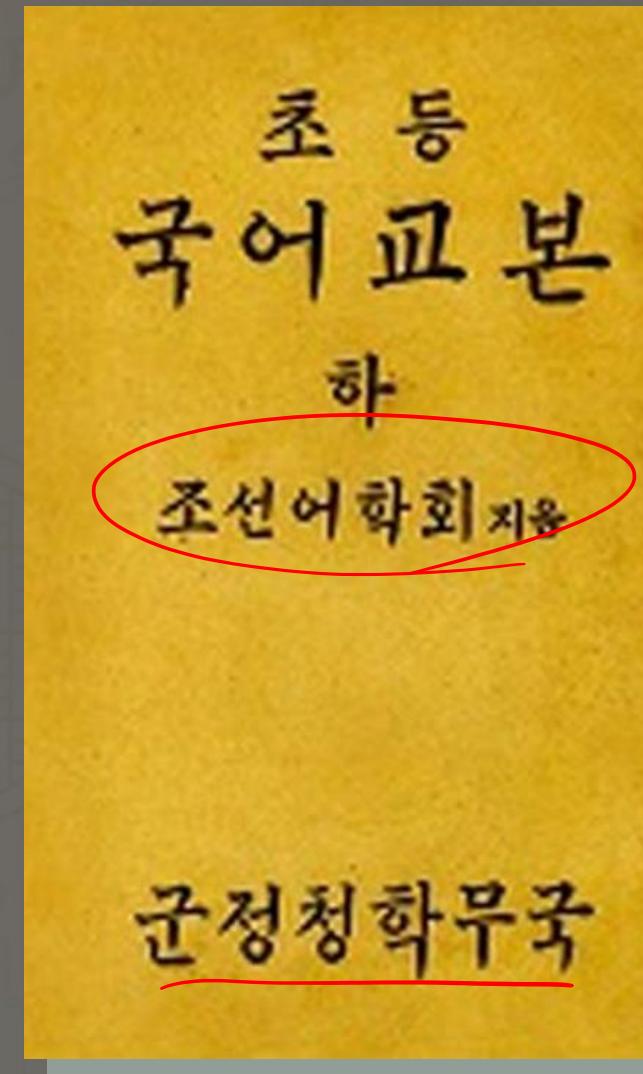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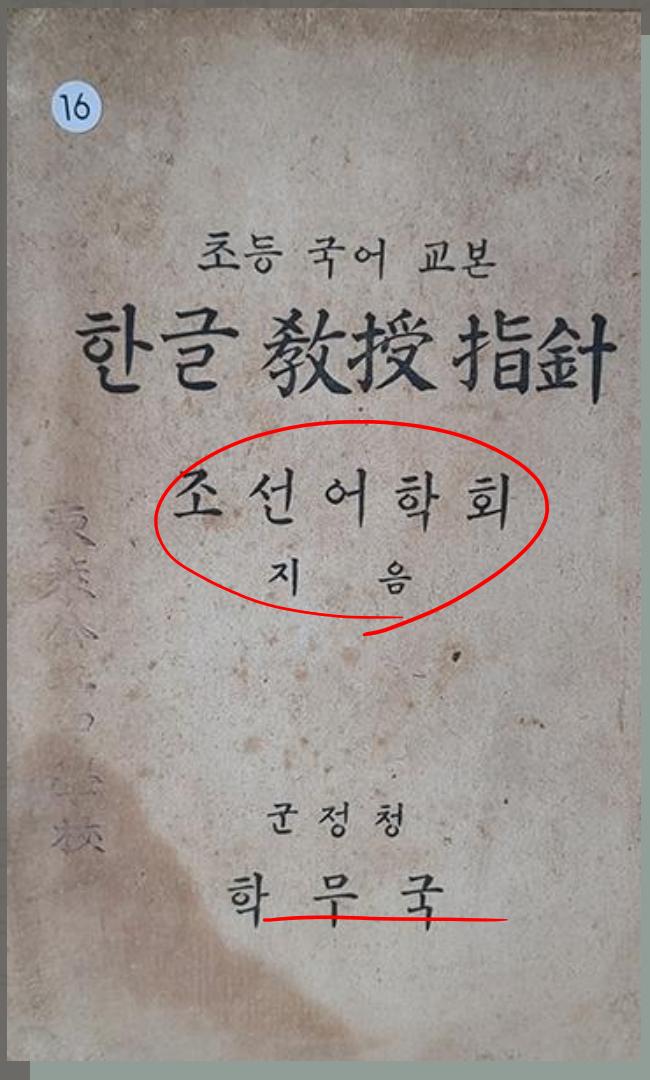


## 우리말글 살리기의 노력: 한글 교육(국어 교과서와 국어교육)

- ▶ 미군정이 건국 준비 과정에 국어 교육에 본격적으로 개입
- ▶ 국어 교과서를 간행하여 각 학급에 보급하는 것으로 실질적 업무는 조선어학회
- ▶ 1945년 11월 첫 국어 교과서 <한글 첫 걸음>, 발행은 군정청 학무국이나 편찬은 조선어학회
- ▶ <한글 첫 걸음> 일반인 대상 제작 한글 교육의 대표적 교재
- ▶ 기본 자모-받침-문장-이야기로 이어지는 구성
- ▶ <초등 국어 교본> 상중하(1학년~6학년)
- ▶ <초등국어> 1~6학년, 12권
- ▶ <중등국어교본> 상중하
- ▶ <문맹퇴치인민독본>



## 우리말글 살리기의 노력: 한글 교육(국어 교과서와 국어교육)



## 학습정리

### #1 한글의 부흥과 실천적 활동

- #2 • 해방 이후 한글은 다시 우리말글로 부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실천적 활동이 있었다.
- #3 • 1929년 시작된 <조선말 큰 사전>의 간행이 약 30여 년의 시간을 거쳐 완성
- #4 • 일제 시대의 잔재를 우리말글에서 없애려는 국어 순화 운동
- #5 • 한글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문맹 타파 운동
- #6 • 한글 전용을 주장한 한글 전용 운동
- #7 • 조선어학회 주도의 국어강습회를 통한 한글 교육
- #8 • 미군정청 주도(조선어학회 실천)의 국어 교과서 개발 보급과 국어 교육

